



간협, 남인순 국회의원과 정책간담회

간호법 제정 등 간호현안 건의

대한간호협회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정책간담회를 5월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졌다.

남인순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맡고 있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전국 시도간호사회 및 산하단체 회장과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 자리에서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간호정책 현황과 과제' 주제로 주요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국민 건강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간호법 제정, 종합적 간호

정책 추진을 위한 정규직제 간호전담부서 설치, 간호사 지속 근무를 위한 근로환경 및 처우 개선, 방문간호관리사업에 맞는 전문인력 범위, 보건의료 업무변화에 따른 간호직공무원 수당 개선 등에 대해 현황 및 문제점을 설명하고 정책 제안을 했다.

남인순 국회의원은 "간호사는 독립운동을 비롯해 역사적으로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해 왔으며, 대한간호협회는 100년 가까운 역사를 지녔다"면서 "간호계에 많은 현안이 놓여 있고, 모두 필요한 일임에도 매듭을 잘 풀어나가지 못하는 것 같은데 하나하나 잘 풀어보자"고 밝혔다.

이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

공과 환자의 안전, 간호사의 고용 안정 등을 위해 간호현안이 잘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남인순 국회의원은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객관적 상황도 무르익고 있는 것 같고, 이제는 국민들에게 왜 간호법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설명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또한 "간호사는 의료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인력인 만큼 보건복지부 내 간호전담부서가 필요하며, 현재의 간호정책 TF 수준은 너무 취약한 것 같다"면서 "특히 간호사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은 현실적으로 당면한 문제인 만큼 관심을 갖고 챙기면서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간호현안에 관심을 갖고 정책간담회 자리를 마련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규숙 기자 kschung@koreanurse.or.kr



대한간호협회는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도민들을 돕기 위한 성금을 강원도에 전달했다.

간협, 강원도 산불 피해 구호성금 전달

피해 입은 간호사 회원들에게는 위로금 지급

대한간호협회는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도민들을 돕기 위한 성금 1천만원을 강원도에 5월 8일 전달했다.

이날 성금 전달식에는 김성호 강원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대한간호협회 손혜숙 상근이사, 강원도간호사회 장희정 회장과 김명희 제1부회장, 손은진 이사, 장명숙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성금은 대한간호협회와 전국의 지부 및 산하단체들이 참여해 마련한 것으로 이재민 중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성금 전달에 앞서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4월 7일 피해지역을 직접 찾아 현장을 둘러보았으며, 강원도간호사회

임원 및 피해지역 간호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어 산불 피해지역 중 규모가 큰 고성과 속초 지역에 봉사단을 4월 8일부터 21일까지 파견했다. 강원도간호사회, 정신간호사회, 보건진료소장회 강원지회, 대한간호협회 중앙간호봉사단이 함께 봉사단을 보냈다. 봉사단원들은 의료지원과 건강 및 심리상담 등을 지원했다.

또한 대한간호협회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간호사 회원들의 현황을 강원도간호사회를 통해 접수받았으며, 주택이 전소되는 등 피해를 입은 회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했다.

정규숙 기자 kschung@

2019년 6월 교육 개최 안내

대한간호협회는 2019년 6월 다음과 같이 교육(보수교육 8시간 인정)을 실시합니다. 관심 있는 간호사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프로그램명	임상검사의 이해 및 간호
일시	2019년 6월 12일(수)
장소	KNA연수원
인원	120명(선착순 마감)
신청기간	2019년 5월 31일(금)까지

* 신청방법 : KNA에듀센터(edu.kna.or.kr) 개인회원 로그인 → 오프라인 RN교육 해방 프로그램명 검색 → 신청 및 결제

학생 안전과 건강권 보장 정책토론회

학생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됐다.

신경민 국회의원 주최, 대한간호협회와 보건교사회 주관으로 5월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4차 산업혁명과 미래교육 포럼이 후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건교사 배치기준과 직무를 규정된 학교보건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순회보건교사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 1명이 배치되어야 하며, 32급급 이상의 과대학교에 보건교사 2인이 배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30년간 개정되지 않은 학교보건법 시행령의 보건교사 직무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은 개회사를 통해 "학교 안전사고가 매년 11만건 이상 발생하고, 흡연·음



주·비만 등 청소년 건강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보건교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학교보건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질적·양적으로 달라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차미향 보건교사회장은 인사말에서 "학생들의 건강권과 안전을 보장하고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수행하며, 보건교사가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시스템이 반드시 구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주혜진 기자 hjjoo@

'생명나눔 인식개선 협의체' 구성

간호협회, 생명나눔 활성화 교육 동참



대한간호협회와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생명나눔 인식개선 협의체'가 구성됐다.

질병관리본부는 대한간호협회,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생명잇기,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5월 3일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대한간호협회 박영우 단

연직 부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생명나눔 인식개선 협의체를 중심으로 생명나눔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협의체는 국민이 생명나눔의 취지와 필요성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장기·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생애주기별 교육도 함께할 예정이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보건 의료와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생명나눔 교육 강자

를 개설해 장기·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거부감을 개선한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과 생명잇기는 기증과 이식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육콘텐츠와 영상물 등을 제작·지원하고, 중·고등학교생 및 예비 의료인 대상 찾아가는 생명나눔 교육을 진행한다.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 3만 7000여명이 장기이식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으나, 장기기증자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장기·인체조직 기증희망등록서 약률은 전체 국민의 약 3% 수준으로 보다 많은 생명을 나누기 위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협의체의 활동이 우리나라의 장기기증을 활성화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장기기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꿔나가기 위해 다양한 교육과 홍보 사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joo@



1522-1755

경기도 수원시간호사회 건강사랑 행사

경기도간호사회 산하 수원시간호사회(회장 김혜경)는 '제12회 수원시 간호사와 함께하는 건강사랑' 행사를 개최했다.

수원시간호사회 임원과 회원, 수원여대 간호대학생 등이 참가했다.

주말을 맞아 광고산을 찾은 수원시민 500여명을 대상으로 혈압·혈당 등을 측정하고, 치매·우울증 간이검사 등을 실시했다. 수원시간호사회 이름이 새겨진 기념품을 선물하고, 건강한 생활과 금연에 대한 상담도 진행했다.

김혜경 회장은 "매년 열고 있는 '수원시 간호사와 함께하는 건강사



랑' 행사가 지역사회에서 간호사의 위상을 높이고, 인지도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간호사 출신인 원미정 경기도의원과 남희숙 수원시 팔달구보건소장이 참석해 간호사들을 격려했다.

최유주 기자 yjchoi@

연간 발행계획에 따라 5월 23일자 신문 휴간합니다.

간호사신문		발행인·편집인 신 경 립 인혜인 김 갑 기	
1976년 12월 31일 창간 / 등록번호 : 서울다06368			
◇대한간호협회 (02)2260-2511		◇간 호 사 신 문 (02)2260-2571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4		FAX (02)2260-2579	
koreanurse.or.kr		독자주소변경 (02)2260-2571	
		nursenews.co.kr	
시·도 간호사회		산 하 단 체	
서울시 (02) 853-5497	충청북도 (043) 272-1573	병원간호사회 (02) 2261-1711	
부산시 (051) 253-3824	충청남도 (041) 509-6348	보건간호사회 (02) 525-7318	
대구시 (053) 756-8485	전라북도 (063) 255-3390	보건진료소장회 (02) 2296-7677	
대전시 (042) 441-2825	전라남도 (061) 277-2292	보건교사회 (02) 527-3390	
광주시 (062) 227-7561	경상북도 (053) 743-2721	마취간호사회 (010-2061-6471)	
대전시 (042) 535-0739	경상남도 (055) 282-6006	보혈심사간호사회 (02) 2263-1959	
울산시 (052) 258-2311	제주도 (064) 747-3811	산상간호사회 (02) 716-9030	
경기도 (031) 252-0351	군 진 (042) 878-4590	가정간호사회 (02) 2267-5688	
강원도 (033) 263-6417		정신간호사회 (02) 425-1271	
		노인간호사회 (052) 230-0735	

간호, 천 번의 손길 천 번의 마음입니다. 저의 이름은 간호사입니다.

